

급성 담낭염으로 발견된 총담관염(CBD web) 1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장현하* · 동석호 · 김효종 · 김병호 · 장영운 · 이정일 · 장 린

총담관염(CBD web)은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으로서 소아와 성인에서도 간혹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소아에 있어서 총담관의 원위부 쪽에 선천성 총담관염이 있으면서 제 1형 총담관 낭종이 같이 동반된 예가 보고된 바 있다. 성인에서도 총담관염이 있으면서 제 1형 총담관낭종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총담관염이 총담관 낭종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저자들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인에서 담석증과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총담관염을 1예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4세 여자 환자로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상복부 동통 있었으며 내원 1주일 전에 갑자기 심한 우상복부 동통, 고열, 오한과 구토 있어 인근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담석증과 급성담낭염 진단 아래 치료 받아 곧 증상 회복되었으나, 자세한 검사 및 수술 위해 본원에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상 우상복부 동통이나 반발통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상 총빌리루빈 0.9 mg/dL, Alkaline phosphatase 112 U/L, γ -GT 61 U/L, AST/ALT 86/60 mg/dL이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내에 다수의 작은 담석들과 담즙 오니(sludge)가 보였다. 역행성 췌담관 촬영에서 담낭관이 총담관과 만나는 지점의 원위부에서 얇은 막성의 음영 결손이 관찰되어 총담관염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췌의 원위부 총담관은 미만성으로 좁아져 있었다. 그 밖에 다른 간외담관의 해부학적 기형은 발견 할 수 없었고 정상 췌관을 보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담낭절제술과 총담관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장 소견상 담낭관이 총담관에 합류되는 지점에서 얇은 막성 구조가 관찰되어 총담관염을 확인하였다. 병리학적 소견상 담낭은 만성 담낭염 소견을 보이며 절제한 총담관은 섬유화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로 추적관찰 중이다. 외국의 사례보고에서는 췌의 근위부 담도가 낭종으로 확장된 예가 있으나, 본 예에서는 근위부 담관의 낭종성 확장은 관찰되지 않았고 동반된 담석증과의 관련여부는 알 수 없었다.

— S-12 —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intraductal ultrasonography)상

특징적 소견을 보이는 Mirizzi 중후군 1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소화기연구소

김영민* · 김은주 · 문종호 · 조영덕 · 이문성 · 심찬섭

Mirizzi 중후군은 담낭관이나 담낭경부에 담석의 감돈으로 간외담관이 압박되어 폐쇄성 황달이 생기는 것으로, 이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복부초음파검사술, 전산단층촬영술, 역행성 췌담관조영술이 이용되나 때로는 담낭암, 담관암, 전이성 압박 같은 악성암을 감별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 따라서 Mirizzi 중후군의 정확한 진단은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intraductal ultrasonography)상 특징적 소견을 보이는 Mirizzi 중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81세된 남자가 내원 15일전 시작된 황달과 짙은 황색 소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과 가족력상 특이 사항 없었다. 전신소견상 소화불량, 체중감소, 황달, 황색 소변을 호소하였으나 복통, 발열, 소양감은 호소하지 않았다. 내원 당시 생징후는 혈압 120/80mmHg, 체온 36.8℃, 맥박 분당 86회, 호흡수 분당 18회이었고, 진찰소견상 공막의 황달, 황색의 피부, 우상복부의 압통이 관찰되었다. 말초혈액검사상 혈색소 10.9 g/dl, 헤마토크리트 33.1%, 백혈구수 5,800/mm³,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AST 137 IU/L, ALT 149 IU/L, Alkaline phosphatase 395 IU/L, 총단백 6.5 g/dl, 알부민 3.2 g/dl, 총빌리루빈 8.7 mg/dl 이었고 암표지자 검사상 CEA 4.3 ng/ml, CA19-9 30.6 U/ml이었다. 복부초음파검사상 총간관 및 그 상방으로 양쪽의 간내담관의 확장소견이 관찰되어 있었고, 담낭벽의 비후소견이 있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담관조영술상 총간관의 위치에서 반구형의 고정된 음영결손이 관찰되었으며, 벽외성 압박과 벽내성 용종성 병변과의 감별이 용이하지 않았고, 담즙세포검사상 악성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벽외성 압박과 벽내성 용종성 병변의 감별을 위하여 관강내 세경초음파검사술(20MHz, MP-1N series, Aloka, Co. Japan)을 시행한 결과 담낭경부에 후방음향음영을 동반한 고에코성의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총간관이 압박되어 있는 소견이 보여 Mirizzi 중후군으로 진단하였고 일반외과로 전과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